

문명숙의 꼭 알아야 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12〉동양의 카네기, 거부가 되다

니꼴라이 2세 대관식에 다녀와 폭넓은 인맥 동원
군대에 유류 납품으로 거부가 된 후

전 재산 털어 항일의병투쟁을 지원한 한인 독립운동의 대부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청나라에서는 의화단(義和團) 사건이 일어났다. 의화단 사건은 서양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청국의 이권을 뜯어가자 청국의 개혁파들이 “외국인에게 죽음을(滅洋)”이란 가치를 내걸고 외세배척을 앞세워 폭동을 일으켰다. 의화단 사건은 외국인 선교사를 죽이고 공장과 교회 등을 파괴한 사건으로 폭동은 청나라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의화단의 봉기가 만주까지 번지면서 동정철도가 파괴되고, 철도수비 병력인 러시아 병사들과 충돌하자, 러시아는 7월에 만주에 파병을 하고, 10월에 전 만주 지역에 군사들을 보내 점령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이동하려면 군수품을 나르는 교통수단이 필요했다. 부지런한 한인들은 군인들이 필요한 운수업을 시작했다.

의화단 사건 뒤에 운수업은 최고의 돈벌이가 되었다. 한인들은 재산이 쑥쑥 늘어났다. 한인 중에서도 한의성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봉준은 큰 재산을 모았다.

의화단 사건에 뒤를 이어,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한인들이 할 일은 더 많아졌다. 특히 최재형은 군대에 물품을 납품해서 굉장히 부를 이루었다.

최재형은 니꼴라이 2세의 대관식에 자리 한인대표로 다녀온 후, 단단한 인맥을 통하여 양치해 군대의 어용상인으로 군부대에 소고기를 납품했다. 무려 한달에 소 150두를 납품했고 그 사업은 최재형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다.

최재형은 돈을 벌어 한인들의 편의

와 포시에트 지역의 상업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최재형이 당시에 큰돈을 벌어서 유치한 회사는 추린,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피안코프, 마르코프등 규모가 큰 회사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쿤스트 앤드 알베르스 회사 건물은, 지금도 화려하고 장엄한 유럽식 건물로 그 위용을 간직한 채 보존되어 있다.

최재형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바실리 루키즈, 한 엘리세이 구키즈 형제와, 김 표트르 니꼴라예비치, 최 니꼴라이 루키즈 등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최재형과 함께 합경북도에서 러시아로 이주해 온 최봉준은 최재형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직접 배를 가지고 일본과 무역을 한 사람으로 조선 최고의 무역 왕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최봉준은 나중에 최재형과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최봉준은 어떤 인물인가.

수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는 최봉준의 삶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최봉준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한글 신문인 ‘해조신문’을 1908년 2월 펴낸 해조신문 창간호에서 “우리의 문명제도를 본받아 가던 일본에 보호라고 하는 더러운 칭호를 받으니”라고 분개하며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또한 성진 신평의 학교 교장은 물론 연해주 명동학교, 크라스키노(연주) 성 흥의숙 설립 등 최재형처럼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계몽운동가답게 안창호와 가깝게 교류하며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밖에 최봉준은 한때 ‘대동공보’(大東共報)의 운영자금을 맡았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 후에는, 그의 변호비와 유족의 생계비를 위하여 많은 금액을 전달했

다. 1910년 8월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이상설, 유인석, 김학만 등이 시베리아 신한촌에서 한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성명회의 선언서 작업을 함께했다.

그러나 최봉준은 최재형과 달리 의병들의 항일무장투쟁에는 반대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크라스키노 지역 자산가이자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과 함께 활동해 왔지만, 1909년 최재형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며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최봉준에게 원조 요구를 하자, 최봉준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한 이유로 최재형과 최봉준이 갈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학계 일각에서도 최봉준의 친일 행적을 증거로 삼는 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친일이라 기보다는 보수적인 계몽주의자 최봉준의 한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최봉준에게는 공훈을 늦게 해서 1996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수됐다.

위에서 밝힌 박환 교수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최봉준은 항일무장투쟁이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최봉준은 의병들이 일본을 상대로 항일투쟁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는 자신의 배들이 일본에 맘대로 왕래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봉준과는 달리 최재형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항일투쟁이 먼저였다.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조선을 집어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항일투쟁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최재형은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는 대한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대한의군의 의식주를 지원했던 것이다.

〈참고서적〉
참고서적 : 박환 교수의 <시베리아 한인 독립운동의 지도자 최재형>

리재윤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12회)

공자의 7가지 교육원칙

누누이 가르쳤다.

조선시대는 남녀의 차별이 유별하고 양반 계층이 지배하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가 사상 자체는 인간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공자의 교육철학은 밭을 땅에 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 사상이다. 공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

①젊은이들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②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③두루 사람들에게 예절 발라야하고 ④사람을 사귐에 있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⑤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야 하며, ⑥어진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⑦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날은 힘이 있으면 학문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교육철학이다.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의 초심자를 위한 수많은 학습교재가 공자가 제시한 7가지 교육원칙 하에 써어졌다는 점이다.

공자가 제시하고 있는 일곱 가지 교육철학을 대략 살펴보기로 하자. 공자의 첫 번째 교육원칙은 ‘효도 교육’이다.

(다음호에 계속)

공자의 교육철학은 밭을 땅에 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사상이다. 공자는 누구나 배워서 깨치고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누누이 가르쳤다. 공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7가지 교육원칙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그 목표가 분명했다. 공맹(孔孟)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공부하면서 깨친 경륜을 세상에 펼칠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을 배출하는 것이었다.

유가의 교육 사상은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양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부분을 일깨워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었다. 공자는 배움에 있어서 종인(衆人)과 군자의 바탕이 따로 없음을 강조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배워서 깨치고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가재산의 삶의 이야기



가재산
2층 1호 문화연구원 원장

학창시절 입주 가정교사의 추억

라 집에 상주하며 일하는 젊은 아주 머니가 있었다. 같은 쳐지의 동생상린이랄까? 그 아주머니가 삼시 세끼 식사에 빨래까지 행여주어야 했고 나를 눈치껏 도와주어 편 다행이었다. 예를 들어 애유회라도 갈 때면 점심 도시락도 싸주기도 하고 주인이 집에 없을 때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갈비찜 같은 음식도 슬쩍 퍼주기도 했다. 참 고마운 일이었다.

그 집에서 1년 반을 그려저저 잘 지냈다. 과외 학생이 기대하던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무사히 진학하자 더 이상 가정교사 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갈 데 없어진 나는 동승동 산꼭대기 지하 단칸방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당분간 신세를 졌다. 그 당시는 대학에 가려면 예비고사를 치러야 했다. 그 친구가 학원에 다니며 재수를 하고 있을 때라 내가 약간 도와주는 조건으로 얹혀살았다.

그러나 운 좋게도 모 대학 부총장으로 계시는 교수댁에 입주하게 되었다. 마침 큰형님의 대학 은사이시고 오래전 형님도 그 댁에서 잠시 가정교사를 했던 터라 인연이 되었다. 고려대 근처 종암동 부잣집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대지가 드넓은 한옥에 대형마루까지 있었고 서재도 큼직했다. 그 집에 동료 교수들은 물론 제자나 학생들이 늘 드나들었다. 입주 과외 쳐집에는 역시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중학생을 가르치는 일하였다. 한동안 나를 지켜보던 부총장님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아이를 아름다워 했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사실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가정교사는 세상물정 모르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마침 학교와 집은 삼십리 길이라 하는 수 없이 하숙을 하고 있었다. 입학 당시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 아르바이트 인연이 되었다.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부잣집 두 아들이 공부가 시원찮다고 하면서 나와 같이 하숙을 하며 공부도 곁에서 좀 봐달라는 일이다. 과외비 조로 한 달에 쌀 네 말이었던 하숙비에다가 약간의 용돈까지 받았으니 큰 도움이 되었고 나를 보람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지 못하고 시골에서 다니며 독학과 둘째없이 입시 공부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던지라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입주 가정교사였다. 마침 작은 형님의 지인을 통해서였다.

집주인은 영등포에서 인삼으로 건강식품을 만드는 큰 회사를 운영했다. 자녀가 여럿 있었지만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의 공부를 내게 맡겼다. 그 애의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라 참 애매했다. 부모들은 귀여운 막내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 이 지상목표였기 때문에 과외선생을 고르고 고르다운 운 좋게 나를 낙점했다.

사실 가정교사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못할 애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참 팔팔한 나이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집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알게 모르게 생활까지도 통제받기 때문이다. 그 집은 넉넉한 편이

었고, 서울대를 가냐 못가냐가 문제였다.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문제 해소를 위해 1970년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평준화 실시 이후 명문고를 가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이제는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되었다.

1979년 신규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정책으로

1980년 7월 전격적으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과외를 금지한 대신에 KBS와 MBC에서 방송 시간을 일부 쪼개서 고교 과외 방송을 진행하도록 했고 이듬해에는 별개의 채널에서 교육 방송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KBS 3TV, 즉, 현재의 EBS다.

다만 완전 금지였던 과외를 그 이후로는 점차 규제를 풀었다. 게다가 과외가 비밀과 형태로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특별 과외비가 전정부지로 오르게 되자 1989년 2월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90년대부터는 몇 만원 하는 동네 과외에서부터 고액과외까지 성행했고 일반인 과외 금지 규정도 해제되었다.

지금은 과외보다는 거의 아르바이트로 통용된다. 그 당시 입주 과외의 동기는 학습 방법의 지도, 성적의 불량한 교과의 학습, 예능 실기 지도, 상급 학교 입시 준비에 대처하기 위한 학습지도 등이었다. 공부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생활지도나 인성적인 측면까지 돌봐주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보니 가정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해서 자녀와 동성인 교사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집에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학생의 혐세자매와 비밀리에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가정교사는 어렵지만 똑똑한 가정교사가 부유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근대 배경의 소설이나 영화같은 창작물을 보면 가정교사가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며, 특히 로맨스물인 경우 가정교사로 들어온 여교사와의 로맨스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한국에서도 1963년 제작된 김기덕 감독의 ‘가정교사’라는 영화도 엄앵란, 신성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데 가정교사와 두 형제 간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그토록 사연도 많았던 입주 과외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옛이야기로 되었다. 지금은 학생도 입주 과외지도를 받길 원하지 않겠지만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를 가진 부모라도 자기 집에 입주 교사를 기다시 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다. 그야말로 입주 가정교사는 이제 전설처럼 되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입주 가정교사를 허락해주는 신분들은 나에게 은인이자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있다.

여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자. 1960년대 고교 비평준화 시절, 명문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이 과열되면서 과외가 사회 문제로 되었다. 당시 명문고였던 경기, 서울, 경북과 등에 진학할 정도의 성적이면, 3년 후에 최소한 SKY대학 입학은 거의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

CTN문화관



김성수(시인·낭송가)
충남 태안 출생. 한국문인협회 회원, 계간 문학애 회원, 시림문학 회원, 종합 유성문화총장지회장, 한국시낭송연합 회장, 한국맑은소리문화예술협회 회장, 국립감문학 수혜, 시낭송 1급지도자, 민간자격증 21개보유, 창작자원금회수혜, 시집 「술개의 눈물」, 「술밤비」, 「노을따리가는 세월」, 「길잃은 버팀」, 「심자는 연필」, 「춤추는 정고」

바이러스

논두렁 김성수

불편하게 다가온
불청객 함께 하리란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안 했었다
부자연스럽게 생활의
균형은 잃어가고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다
어차피 이제는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서서히
적응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놨
나 우리 인간이란 동물이
만든 환경의 오염에서 오는
것이기에

겸허히 맞이해야 하는
별이기도 하다
지구는 병이 들어 눌으려하는
걸 어찌 임시로 급급해야만
하는 것인가
무서운 별레
치료할 수 없는
지구는 시름시름 병들
어 자리에 눌을 것이다
그때
별레들도 죽어
서서히 없어질 것이고 쓰러진
지구 방황 속에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